

* 사진 및 글의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아이와 함께 자동차로 여행한 147일간의 유럽 이야기

5 권

네이버 블로그 '담장위 고양이'

<http://noraneko77.blog.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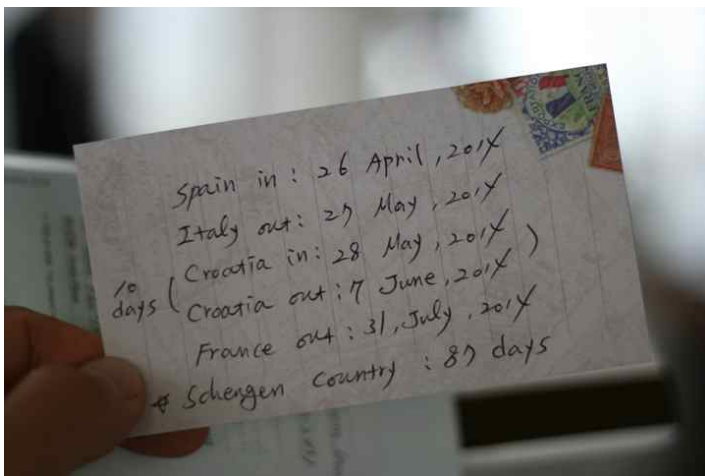
순박하고 친절함 아일랜드



o 여행기간 : 7.31 ~ 8.7 (8일)

o 여행도시 : 더블린, 모하, 위클로 국립공원

더블린 공항에 내려 간단히 입국심사를 마쳤습니다. 프랑스에서 영국이 아닌 아일랜드로 먼저 넘어온 이유가 사실 입국심사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입국심사는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유럽여행의 여러 후기를 읽어보면, 입국심사가 가장 까다로운 나라로 너나 할 것 없이 영국을 꼽고 있어요. 만약 영국의 입국심사가 까다롭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다른 나라는 더욱 수월했을 겁니다.

영국에서 입국을 거부하는 사유 중 하나가, 유럽대륙의 쥬겐조

약(90일 이내의 기간만 체류 허용)을 잠시 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예요. 저희 가족은 그야말로 90일을 거의 꽉 채운 뒤 넘어가는 거라, 운이 나쁘면 영국에 입국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장기 여행을 준비함에 있어,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비록 가능성이 낮더라도 가능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입국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아일랜드로 먼저 들어오게 되었지요. 아일랜드와 영국은 상호 비자 면제국으로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넘어갈 때에는 별도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게다가 아일랜드는 영국에 비해 물가가 저렴하고, 유럽에서 가장 친절할 정도로 외국인에게 호의적이라고 하니, 조금 돌아가더라도 꼭 한 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경비를 절약하고자 숙소를 더블린 외곽에 잡은 터라, 매일 트

램(Luas)을 왕복 한 시간 이상 타야 했지요.

영국(England)과 아일랜드(Ireland), 그리고 스코틀랜드(Scotland)의 역사에 대해 대강이라도 알고 간다면, 왜 잉글랜드(England)가 UK(United Kingdom)와 다른 건지, 위 세 나라의 국민들이 어째서 애증의 관계에 얽혀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잉글랜드 영토에 살고 있던 건 로마시대 이전부터 켈트(Celt)족이었어요. 잉글랜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국(UK)이라고 알고 있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를 포함한 모든 영토가 사실은 켈트족의 땅이었지요.

북유럽 지역에 있던 앵글로색슨족이 침략해와 지금의 잉글랜드를 차지하고, 쫓겨나간 켈트족이 살게 된 척박한 지역이 지금의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스 지방입니다.

아일랜드는 역사적으로 800년 이상, 잉글랜드의 침략과 지배, 수탈을 겪었습니다. 켈트족 고유의 언어인 게일어를 식민지배 기간 중 사용할 수 없어 민족성을 위협받기도 하였고, 영국 성공회의 카톨릭 탄압정책에 의해 전국민의 90% 이상이 카톨릭 신자였던 아일랜드는 온갖 부당한 차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농지가 영국인 지주에게 넘어간데다, 1845년부터 수

년간 계속된 대기근에 100만명 이상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정작 본국의 지주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어놓지 않아, 독립에 대한 움직임이 더욱 거세어 졌지요.

끈질긴 독립 투쟁으로 1930년 즈음 자치권을 얻어내고, 완전한 독립을 거의 이루었으나, 영국 이주민이 많았던 북아일랜드 지역이 독립에 반대하여, 내전 끝에 결국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일부 지역만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인은 왜 일본인을 미워하지?' 라는 질문에, '아일랜드 사람이 영국인을 미워하는 이유와 같아' 라고 하면 대번에 이해한다고 하지요.

어쨌거나, 천 년에 가까운 오랜 식민 지배를 겪은 탓에 아일랜드와 영국, 두 나라는 마치 하나의 나라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두 나라가 상호 비자를 면제하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겠지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의 관계도 이에 못지않게 복잡하고, 흥미로운데, 그건 스코틀랜드 여행기에서 풀어 놓는 편이 좋겠지요.



오코넬 스트릿을 걷는 길. 뒤로 보이는 뾰족한 첨탑은 더블린의 대표적인 상징물 '스파이어(Spire)'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영국을 추월한 기념으로 세워졌다고 하지요. 본래 영국의 유명한 해군 제독 넬슨의 동상이 서있었다고 하는데, 1966년 전직 IRA(아일랜드 독립군) 단원들에 의해 파손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이 파운드 화를 쓰는 반면, 아일랜드는 유로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EU에도 가입을 했구요. 다시금 영국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은 아닐까요? 그래서 아일랜드의 경제가 성장하고 GDP가 영국을 추월했을 때 기쁨에 눈물을 흘린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시내를 둘러보기 전, 식사를 하기 위해 패스트푸드점에 들렀는데,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와 남은 음식이 없나 기웃거리고 있네요.

'갈매기랑 놀아도 돼요?'

'그럼~'

동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악인(惡人)은 없다고 하지요. 바르고, 밝게 자라주어서 대견합니다.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있는 것도 기특하구요.



늘 여행객들이 북적이는 템플바에 들어가 시원한 흑맥주로 목을 축이였습니다.



그래프턴 거리는 거리공연(Busking)으로 유명한 거리입니다. 영화 '원스(Once)'의 주인공이 노래를 부르던 거리도 바로 이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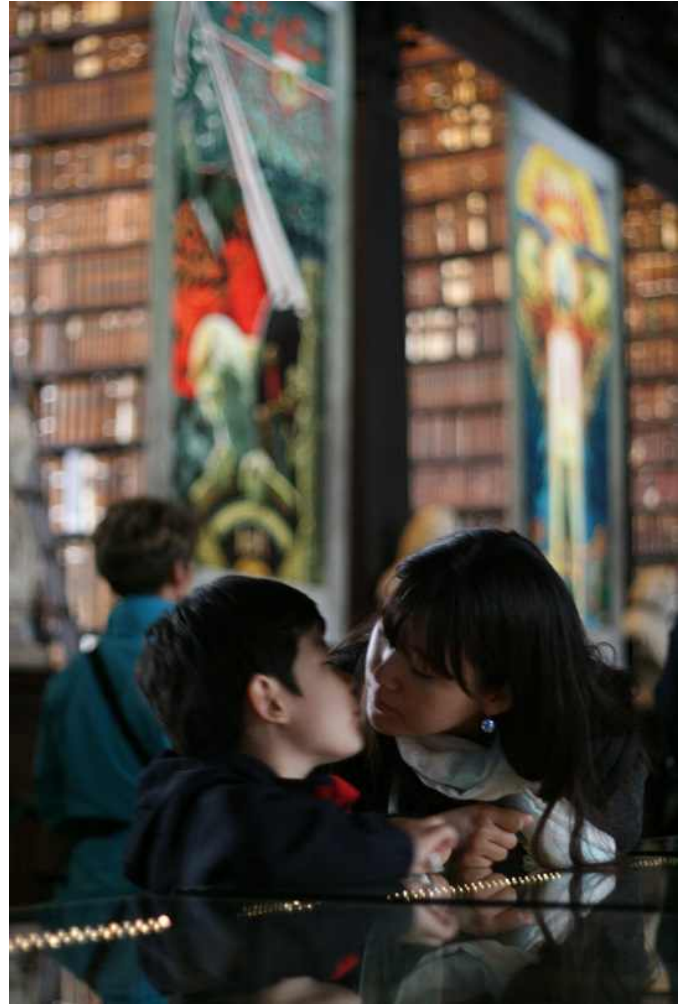
이지요. 언제 가더라도 버스커들의 노래와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원스의 주인공이 도둑맞은 돈을 찾기 위해 험퍽거리며 뛰어온 곳, 성 스테판 그린 공원까지 걸어 왔습니다. 공원이 넓고 호수에는 백조와 오리가 많아 아들 녀석과 즐겁게 한참을 놀았습니다.



전세계 어딜 가더라도 아이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는 비눗방울 아저씨가 빠지지 않고 있네요.



트리니티 대학의 '켈스 도서관(the Book of Kells)'에 들어왔습니다. 긴 도서관(Long Room)에 가득 꽂힌 고서(古書), 아름다운 그림과 문양으로 장식된 성경 필사본 '켈스의 서'를 비롯해 유명한 고서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꼽히는 이곳은, 영화 '해리포터'에서 호그와트 마법학교의 도서관으로 나와 유명세를 탔다고 하네요.

더블린 시내를 구석구석 돌아본 뒤 다시금 자동차를 렌트하여 아일랜드의 반대편을 다녀오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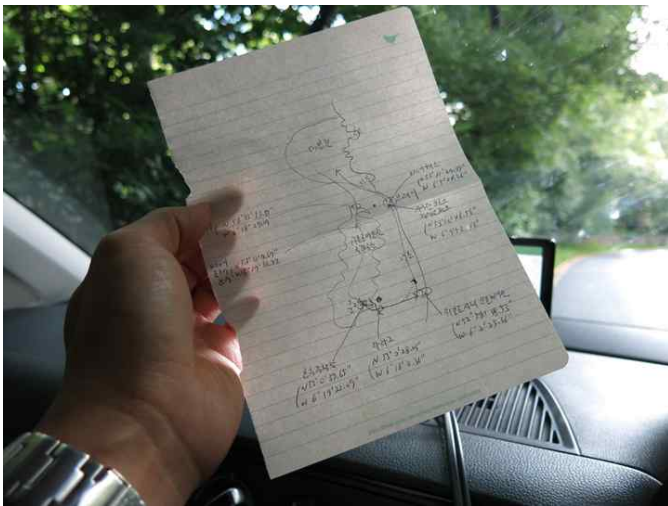
더블린에서 약 250km 정도 달리면, 대서양이 시작되는 아일랜드의 섬 반대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유명한 모허(Cliff of Moher)에 다녀왔어요.



해마다 추락사고가 몇 명씩 발생한다고 하는데,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텐데, 참 이상하지요? 외국은 사회적인 통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 보다는 개인의 주의를 강조하는 것이지요.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고의 책임은 국가가 아닌 부주의한 개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섬 반대편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는 아쉬워 아일랜드의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골웨이(Galway)에 잠시 들렀습니다. 아일랜드의 상징물 중 하나가 하프 인데, 운 좋게 거리에서 하프 연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은 더블린 외곽의 위클로 마운틴 국립공원에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모히 보다는 이곳이 훨씬 마음에 들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산과 들, 그리고 파란하늘에 떠있는 뭉게구름, 이따금 지나가는 양떼.. 마음이 탁 트이는 무척 근사한 곳이었습니다.



국립공원의 끝자락과 이어지는 '글렌달록(Glendalough) 호수' 까지 찾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 년 사계절 내내 비가 내린다는 아일랜드, 습기를 가득 머금은 공원의 숲과 나무는 사방이 이끼로 뒤덮혀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렌트카를 반납하기 전, 브레이에 들러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8월초 한여름인데도 바람이 많이 불고, 바닷물이 차가웠어요. 아일랜드는 한여름에도 날이 추워 수영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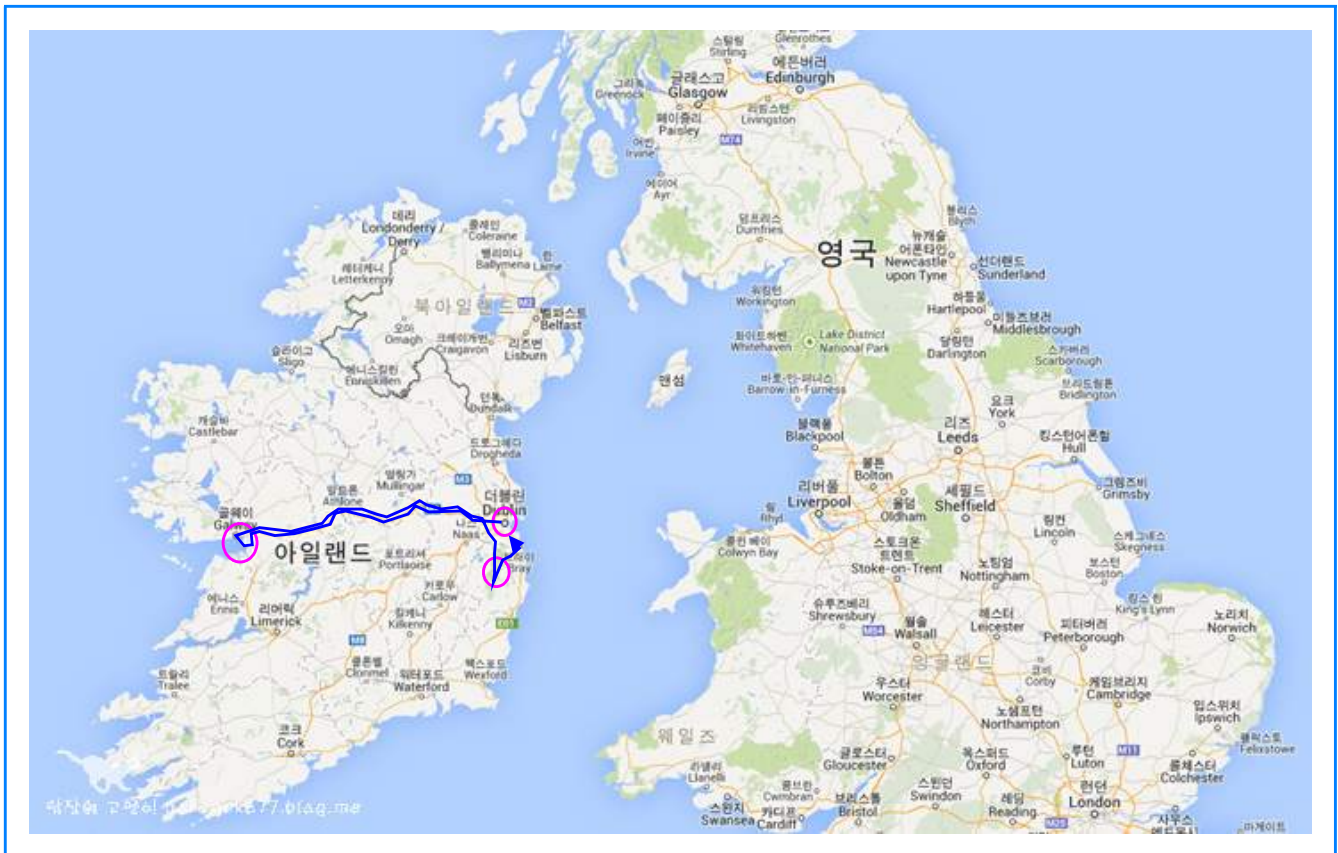


아일랜드에서의 마지막 날, 더블린 시내에 있는 피닉스파크(Phoenix Park)에 다녀왔습니다. 도심공원으로는 유럽 최대규모



라더니, 한 시간 정도 헤맨 것
같아요. 공원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슴이 수백 마리
규모라더니, 정말 어렵지 않게
사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아직 사람의 손길을 덜 탄 자연을 볼 수 있었
고, 소박한 거리와 순박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일랜드를 떠나 스코틀랜드를 향해 떠납니다.



[아일랜드에서의 여정 - 총 500km]

에든버러 축제! 스코틀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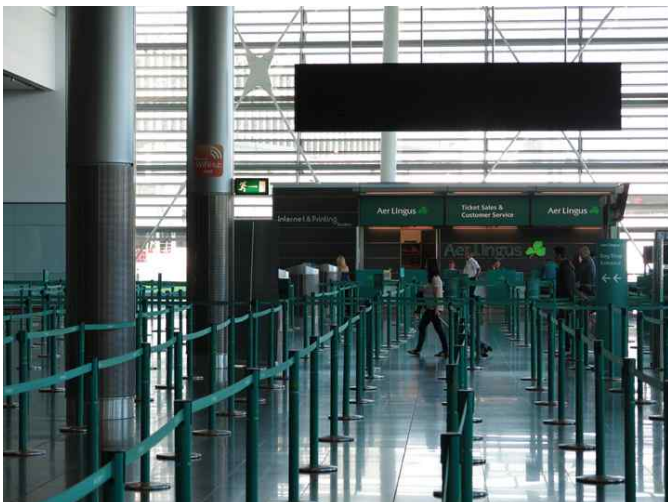


o 여행기간 : 8.7 ~ 8.12 (6일)

o 여행도시 : 에든버러

스카치 위스키, 백파이프, 체크무늬.. 스코틀랜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그나마 단편적인 정보일 뿐, 스코틀랜드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지요.

문화 관련 일을 잠시 한 적이 있는, 그리고 요즘에도 공연을 즐겨 보는 집사람이 ‘에든버러 축제’에 대해 이야기 했을 때에도, 도대체 그게 뭐하는 축제인지 감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걸 꼭 보러 가야 하겠느냐는 저의 질문에, 꼭 보고 싶다고 대답하길래 영국(UK)의 일정은 에든버러 축제를 중심으로 짜게 되었지요.



더블린 공항에서 비행기로 약 한 시간, 작디 작은 프로펠러기를 타고 스코틀랜드의 더블린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일랜드는 독립 국가이지만, 스코틀랜드는 영국(UK)에 속한 지방입니다. 지방은 지방인데.. 이거 참 설명하기가 애매하네요. 차라리 하나의 나라로 보는 편이 정확하거든요. UK라는 단어가 United Kingdom, 즉 연합왕국(제국) 인데, 아일랜드도 그렇고,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원래는 잉글랜드와 분리된 독립 왕국이었던 거거든요. 아일랜드 여행기에서 잠시 설명한 적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앵글로색슨족과 켈트족은 양속 간이었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섞이기 어렵지요.

멜깁슨이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브레이브 하트’를 아시나요? 그 영화의 배경이 잉글랜드의 침략에 맞서 싸운 스코틀랜드의 역사예요. 천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치고받고 싸우던 사이라, 이제와 사이좋게 지낸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겠지요.

현재도 스코틀랜드의 정치적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있고, 화폐 또한 서로 다른 은행에서 발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UK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지요. 저희가 여행했던 2014년에도 분리독립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반대파가 많았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 8월이 되면 이 에든버러에 전세계에서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바로 에든버러 축제 때문이라고 해요.

그동안 제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던 축제는 브라질의 ‘삼바 축제’ 라던가,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같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축제(祝祭)’ 였는데, 에든버러 축제의 주제는 바로 ‘공연’ 이라고 하더라구요.

‘공연으로 축제를 한다고? 공연으로 어떻게 축제를 하는데?’

제가 집사람에게 무슨 그런 싱거운 축제가 다 있느냐, 연극,

뮤지컬을 보러 극장에 가는게 어떻게 축제가 될 수 있느냐며 열심히 설득을 해보았지만, 가보면 알거립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열심히 정보를 찾아보니, 에든버러 축제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연축제라고 하더군요. 특히 로열마일 거리에서 펼쳐지는 '프린지 축제(the fringe of the official festival drama)'가 유명한데, 정식으로 초청받지 못한 공연단이 거리에서 펼치는 무대가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져, 거리 전체가 거대한 공연장이 되어 불거리가 풍성하다고 해요.



그래서였을까요? 7개월 전에 미리 숙소를 예약할 때에도 이미 많은 숙소의 예약이 꽉 차있었고, 그나마 어렵게 구한 숙소도 고작 별 2개 수준의 호스텔이었지만, 1박 요금이 20만원을 훌쩍 넘었어요. 그래도 숙소에서 조금만 걸어나오면 로열마일 거리가 펼쳐졌기에, 머무는 동안 매일 매일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프린지 축제가 한창인 로열마일 거리에는 정식 공연을 홍보하는 맛보기 공연도 많았어요. 신기하게도 한국에서 온 사물놀이 때도 만날 수 있었지요. 어찌나 반갑던지..

그리고 보니 그분들 외에도 마당극을 공연하러 오신 분들도 보았는데, 저희와 반갑게 이야기 하시다가, 5개월째 여행을 하고 있다는 말에 ‘미쳤구나?’ 라고 하셔서 큰소리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런던도 그랬지만, 스코틀랜드 역시 국립으로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모두 무료로 개방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마다 국립 미술관에 들어가 시간을 때울 수 있었지요. 규모는 작았지만, 그래도 고희와 고갱, 모네와 로댕의 작품까지 두루두루 갖추고 있었답니다.



에든버러에서 옛새를 머무는 동안 시내를 쉬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군악대 퍼레이드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행사관계자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보니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시위였다고 하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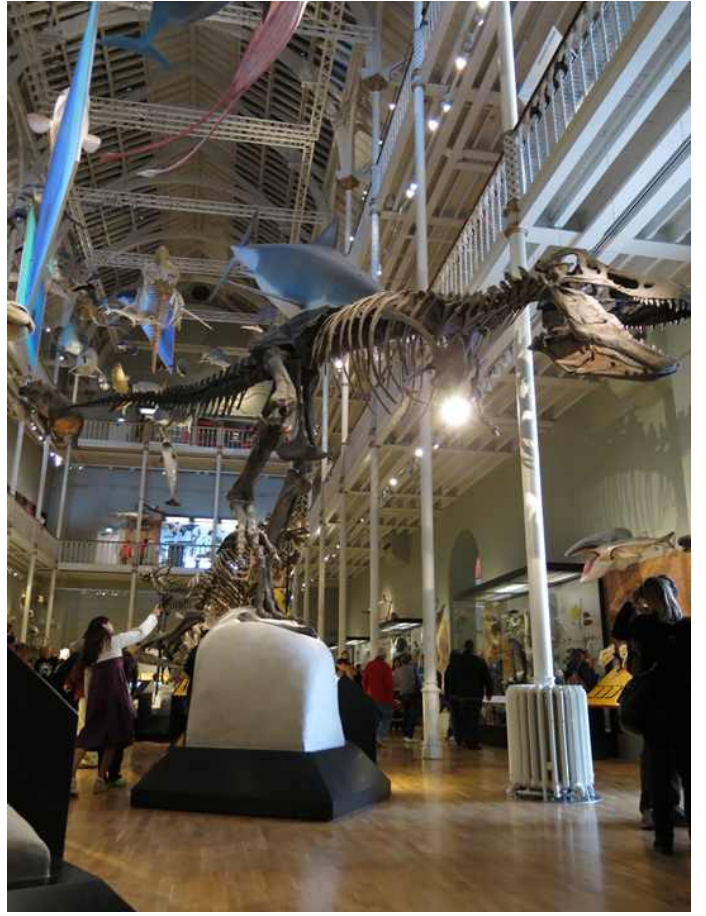
견다보니 벼룩시장도 만났고, 또 화석가게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유럽 여행 중 화석을 정말 많이 사왔어요. 쓸 데 없는데 돈을 낭비한다고 눈치를 보긴 했지만..



어린이를 위한 축제도 있었습니다. BBC 페스티벌에 가서 영국 어린이 프로그램의 쇼를 구경하기도 했지요. 영국에서 느낀 건데, 선진국의 시민정신은 참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영국에 머무는 동안 아침 일찍 이 녀석이 즐겨보던 BBC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뽀뽀뽀나 덩동댕 유치원 같은 프로그램 말이지요. 그 프로그램의 선생님이 한 팔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흑인 혹은 동양인 이었어요. 한 팔이 없는 선생님이 반팔티를 입고 기지개를 켜면, (아마도 사고로 잘린) 팔꿈치의 아문흉터가 그대로 보이는데, 참 해맑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구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선생님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지 않겠지요. 또 유색인 선생님이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유색인에 대한 편견이 없겠지요.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에 감탄을 했었답니다.





아들 녀석을 위해 스코틀랜드 국립 박물관도 다녀왔어요. 자연사 박물관을 비롯해 영국 박물관을 합쳐 놓은 듯한 다양한 수집품이 있었는데, 규모는 상대적으로 아담했습니다.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입장료는 무료였지요.





로열마일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구경했습니다. 세계적인 축제는 이렇구나, 매일 감탄을 했지요.



이른 아침 로열마일에 우렁찬 백파이프 소리가 들려 뛰쳐 나갔

습니다. 에든버러 축제의 꽃, ‘밀리터리 타투’를 홍보하는 듯한
군악대 퍼레이드가 펼쳐졌어요.



비슷한 듯 하면서도 각기 다른 체크무늬는 본래 각각의 가문을
상징하는 무늬라고 하지요? 사람들 틈에 섞여 군악대를 따라 한
참을 걸어갔습니다.



공원 한켠에서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고 있어 아들 녀석이 원하는
백호로 분장해 보았습니다. ‘흰 호랑이도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럼요!’ 라고 시원하게 대답해주더군요.



국립 미술관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미술 수업이 한창이었어요. 저희도 잠시 체험해보았습니다. 카멜레온이나 도마뱀을 그린 줄 알았는데 용이라고 해서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께 잘했다고 칭찬받았어요.



스코틀랜드에서의 마지막 밤, 에든버러 축제의 꽃 ‘밀리터리 타투 (Military Tatto)’를 보러 갑니다.

밀리터리 타투는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군악대가 펼치는 공연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전통춤을 비롯한 여러 공연이 함께 펼쳐지기도 하구요. 이 공연의 인기가 어찌나 좋은지, 티켓 예매를 시작하기가 무섭게 대부분의 좌석이 매진이 되어 버린답니다. 그래서 공연 현장에는 티켓판매처가 아예 없어요. 저도 달력에 날짜를 적어 놓고 깜빡 잊었는데, 2~3일 지난 뒤 예약을 하려 했더니, 이미 좋은 자리는 대부분 나가고 없더라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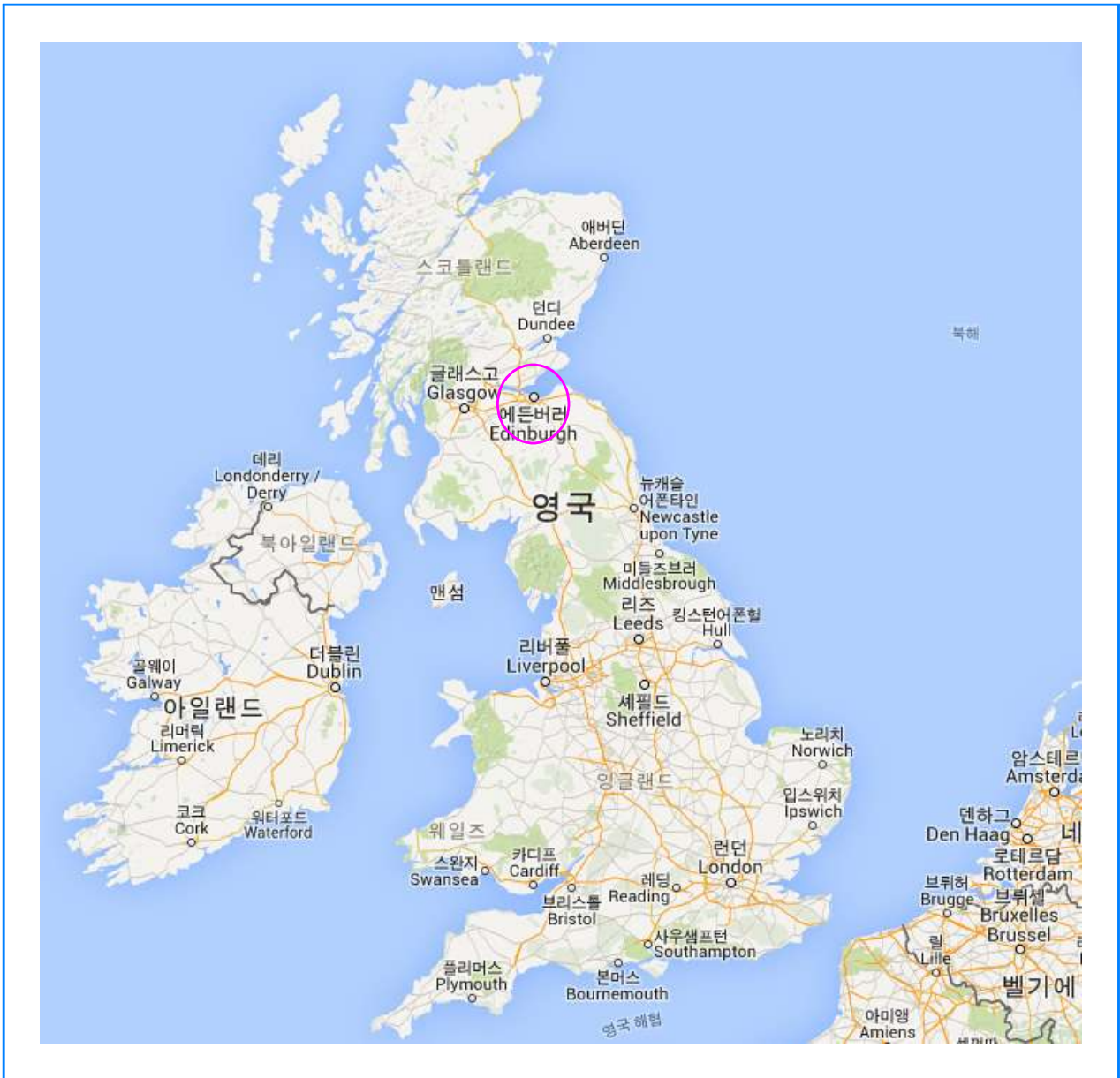


군악대의 연주도 훌륭했지만, 스코틀랜드 성의 성벽을 장식하던 조명도 참 근사했습니다. 작년(2013년)에는 한국의 군악대도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오지 않았더군요.



이제 스코틀랜드에서의 일정을 끝내고, 마지막 여행지 런던으로 떠납니다. 에든버러의 숙소를 나서는 길, 이른 아침부터 부슬 부슬 비가 내렸어요. 여행의 끝을 앞둔 지금, 곧 귀국한다는 기쁨과 왠지 모를 허전한 마음이 함께 듭니다.





[스코틀랜드에서의 여정]

박물관을 누비다, 영국



o 여행기간 : 8.12 ~ 8.23 (12일)

o 여행도시 : 런던, 그리니치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를 떠나 짧은 비행 끝에, 영국의 수도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뮤지컬 팸플릿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짐사람도 런던에 오면 꼭 뮤지컬을 보고 싶다며 베풀고 있던데, 런던의 뮤지컬이 유명한가 봅니다.



히드로 공항 역의 지하철 매표소에서 교통카드인 '오이스터 카드(Oyster Card)'를 구입하고, 각각 30파운드(54,000원)씩 충전해두었습니다. 런던은 지하철 1구간의 기본요금도 약 4천원부터 시작할 만큼, 교통비가 무척 비싼 도시입니다. 하긴 식비를 포함한 다른 물가도 살인적으로 높았지요.



런던의 숙소를 예약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시내 중심부는 가격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예약할 수가 없었고, 결국 버스로 40분가량 떨어진 런던 외곽의 화이트차펠(White Chapel) 지역에 호텔을 잡았습니다. 덕분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빨간 이층 버스를 탈 수 있었어요.



우선 영국 박물관(British Museum)에 들렀습니다. 과거에는 대영(大英) 박물관 이라고 불리었지요. 예전에는 영국 앞에 '위대한(great)'이 붙었는데, 지금은 겸손해진 영국이 슬그머니 'great'를 빼내었습니다.

'Great Britain(대영제국)' ,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제국주의 시절, 영국에서 점령한 나라가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 전세계에 걸쳐 30개국을 넘었지요. 영국이 점령한 영토가 지구 한 바퀴를 돌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영향으로 지금도 전세계 10억 인구가 영어를 쓰고 있으니깐요.재미있는 건 영국의 옛 점령지였던 36개의 나라들이 스스로 '영(英) 연방의 일원(British Commonwealth)'이 되어 지금까지도 푹푹 뭉쳐있다는 것이지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국 여왕님을 모시고, 형식상으로나마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요. 영국박물관은 화려했던 제국주의 시절, 전세계에서 약탈해온 보물들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심지어 신전을 통째로 옮겨왔네요.





전세계의 유물을 한자리에서 구경할 수 있으니, 관람객 입장에서는 편한 일인 걸까요? 하지만, 약탈당한 입장에서는 유쾌하지 않은 역사겠지요.

영국 박물관에서도 가장 유명한 '로제타 스톤(Rosetta Stone)' 앞에 섰습니다. 이 비문(비석)이 발견되기 전까지,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석할 길이 없었는데, 동일한 내용이 이집트어, 그리스어로 나란히 적힌 '로제타 스톤'이 발견되어 이미 해석이 가능한 그리스어를 기반으로 이집트 문자를 해석할 수 있게 되었지요.



영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왕립(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부분 입장료가 없었습니다. 자발적인 기부(donation)를 유도하는 곳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료로 입장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영국에 머무는 동안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을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자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두고 여러 번 찾아갔던 박물관도 많았어요. 물가가 비싼 대신 이런 부분에서 만회할 수 있었지요.



박물관에 지루해 하는 아들을 위해 피카디리 서커스와 옥스퍼

드 서커스 사이에 위치한 런던 최대의 장난감 백화점 ‘햄리스’를 찾아갔습니다.

영국의 거리 이정표에 흔히 들어가는 서커스(circus)는 우리나라의 사거리 같은 의미예요. 을지로사거리, 광화문사거리 처럼요. 앞서 설명했지만, 유럽은 사거리보다는 원형교차로가 많아서 그런 지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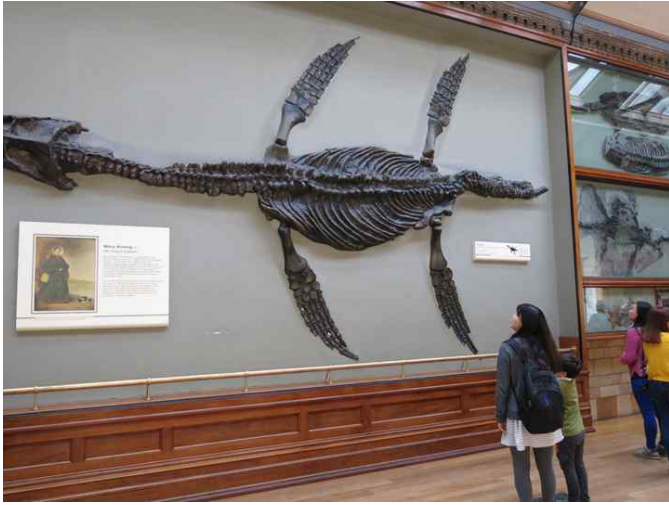
새끼 손가락 한 마디 보다 작은 테디베어, 해리포터에 나왔던 마법 지팡이, 그 밖에도 여러 영화에 나왔던 소품 등.. 어른들도 눈이 돌아가는 상품이 많았어요. 가격은 좀 비쌌지만.

아들 녀석은 근사한 공룡 피규어를 하나 골라 의기양양 숙소로 돌아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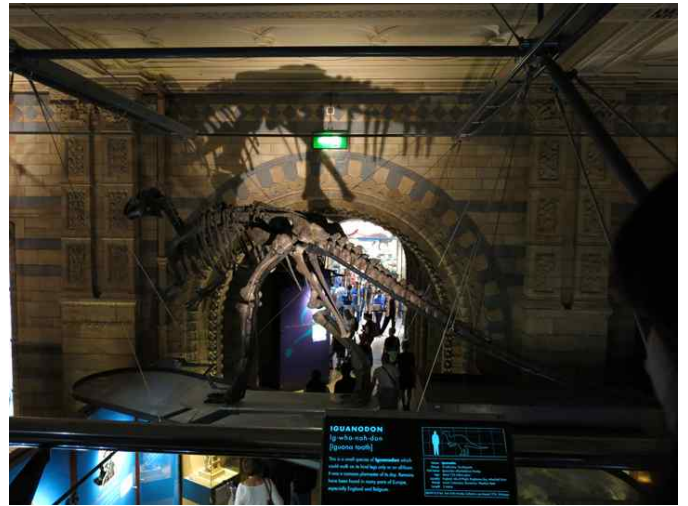


영국에 오면 꼭 가려고 마음 먹었던 자연사 박물관도 자주 찾았습니다. 런던에 머무는 동안 세 번이나 갔거든요. 이런 박물관이 왜 한국에는 없는건지, 부러운 마음도 듭니다.





첫날은 가장 인기가 많은, 그리고 아들 녀석이 가장 좋아하는 공룡관을 먼저 관람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유류관과 빙하시대 동물전을 관람했지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프랑스의 자연사 박물관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영국의 박물관은 고풍스러운 맛은 있었지만, 관람객의 편의와 미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학술적 가치를 비교할 능력이 부족하기에, 아는 만큼 눈에 보인건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아들 녀석이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고, 지금처럼 꾸준히 동식물에 관심을 갖는다면, 나중에 이런 박물관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 나이가 들면서 꿈이 점차 바뀌겠지만, 일단 본인이 좋아하는 걸 최대한 도와주고 싶어요.



주말에는 노팅힐에 다녀왔습니다. 8월 중순, 한여름의 폭폭 찌는 날씨여야 하는데 사진 속 사람들의 복장을 보면 알겠지만, 기온이 쌀쌀했어요. 어째서 영국사람들이 따뜻한 남쪽 지역으로 요양을 간다는 건지 이제야 이해가 가더군요.



노팅힐을 찾은 건 영화 ‘노팅힐’ 때문이었습니다. 문화의 힘이
란 이리 대단한걸까요? 우리나라의 드라마에 호감을 갖고, 촬영
장소를 찾아오게 만드는 한류(韓流)의 힘이 이런 것이겠지요?
십 수년 전 처음 본 영화 노팅힐. 그 영화를 몇 번이고 돌려 보
았습니다. 대본을 찾아 영어 공부를 하기도 했구요. 언젠가 영국
에 가면 노팅힐을 꼭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처럼 영화 속 자취를 찾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말
에 열리는 노팅힐의 포토벨로 마켓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을 찾아
온 관광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극중 남자주
 인공이 운영
 하던 서점과
 여주인공과의
 로맨스가 펼
 쳐지던 집까
 지 찾아가 보
 니 무언가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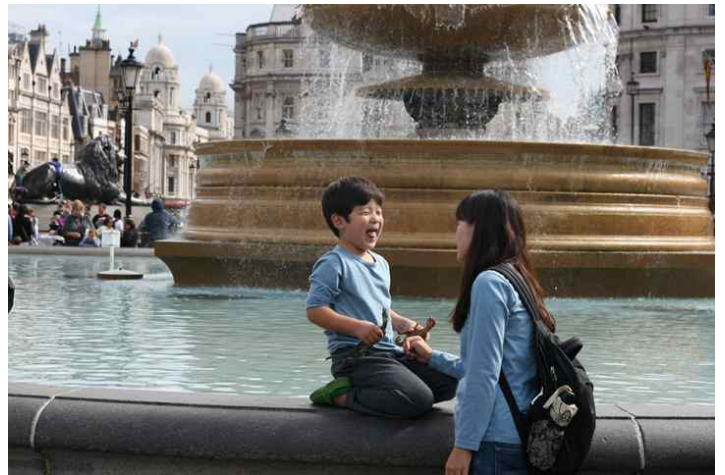


제를 하나 해결한 듯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런던 역시 정말 많은 곳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빅벤(Big Ben)

을 찾아가보기도 하고, 삼성과 LG의 전광판 광고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피카딜리 서커스도 자주 지나쳤지요. 그 뒤편의 카나비 거리도 즐겨 걸었던 곳이구요.



유명화가의 여러 작품의 전시된 국립 미술관도 다녀왔습니다. 입장료가 무료인 점도 마음에 들었지만, 사진촬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점도 좋았어요. 여행을 끝내고 돌아와 기억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건 결국 사진 밖에 없더라구요. 내가 그때 저곳에 갔었지, 저 그림을 봤었어.. 하는 반가운 마음 말이지요.



고흐의 해바라기와 빈의자. 둘 다 너무 유명한 작품이지요. 특히 화병에 고흐의 서명이 들어간 작품은 몇 되지 않는다고 해요.



고흐의 풍경화와 모네의 수련도 유명하구요. 이런 그림을 코 앞에서 보는 기분은 정말이지 근사했어요.



그 외에도 밀레를 비롯한 널리 알려진 화가들의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공부하는 분들의 모작(模作)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었구요.



아직 이 녀석에게는 재미없는 시간이었다는 게 애석할 뿐이었죠.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 역시 세 번이 찾아갔던, 볼거리가 많은 박물관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과 그의 남편 알버트 공의 이름을 딴 박물관에는 패션과 건축 조각과 공예 등을 주제로 다양한 수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자연사 박물관을 갈 때 마다 겸사겸사 들르기도 했고, 또 도보로 10 여분 거리에 해롯 백화점이 있어 흥차 같은 기념품을 귀국 선물로 준비하기도 했지요.



특히 금은세공품 전시실에는 역대 왕실의 귀금속부터 다양한 보석이 전시되어 있어 눈이 휘둥그래지기도 하였습니다.



숙소에서 15분 정도 걸으면 도개교로 유명한 타워브릿지가 있어, 오며가며 자주 지나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 다리가 열리고 닫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타워브릿지를 건너면 런던시청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부터 테이트모던 미술관까지 강변을 따라 상점거리가 펼쳐져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런던시 조형물 위에 공룡을 올려놓고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이런 세상에! 런던의 미래구나?’ 라고

하셔서 한참을 웃기도 했어요.

물가가 비싼 런던, 간편한 먹거리를 하나 사더라도 지금까지 지나왔던 유럽의 그 어떤 나라보다 가격이 비싸 지갑을 열기가 망설여졌어요. 한인슈퍼의 물가 역시 마찬가지로 였는데, 며칠 전 파리에서 샀던 라면을 1.5배 정도 비싸게 사야할 정도였지요.

게다가 영국의 첫 도착지였던 스코틀랜드에서 인출했던 지폐를 런던의 상점에서 거부당한 일도 있었구요. 발행한 은행이 다르다 보니 지폐 모양도 다르더라구요. 큰 상점은 받아주었는데, 동네 작은 식당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 통에 무엇이 잘못 되었나 한참을 고민했더랬지요.



런던시청에서 테이트모던까지 걸어가는 길, 담벼락에 붙은 경고문 ‘거리공연 금지(No busking)’, 그리고 작게 낙서된 항의문 ‘왜 안돼? (Why not?)’



피카소, 마티스를 비롯한 유명 화가의 작품들이 있었는데, 독특한 설치미술이 눈에 띄더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순회 특별 전시전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작품들이지요. 한국에 돌아와서 후회가 많이 되었던 게, 다시 없는 기회라 생각하고 좀더 진지하게 감상했어야 했는데 대충대충 보고 지나쳤다는 점이었어요.



미술관을 나와 밀레니엄 브릿지를 건넜습니다. 강 너머로 가야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가 다니거든요. 세인트 폴 성당 앞에는 수학여행을 온 듯한 여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아들



녀석이 배시시 웃으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함께 사진을 찍 더군요. 누굴 닮았는지.. 이번 여행을 통해 녀석이 좋아졌습니다.



자연사 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과학박물관도 갔었지요. 전시물 자체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다른 박물관에 비해 수준이 살짝 떨어졌지만, 나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런던에 오면 꼭 뮤지컬을 보고 싶었던 아이 엄마는 결국 소원 하던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아이와 저는 그 시간 동안 동물원에 다녀왔구요.



런던 동물원에 다녀오고 나서, 서울대공원(동물원)이 얼마나 고
 마운 시설인지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규모는 비슷한데, 가격
 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거든요. 입장료가 글썩 아이는 3만
 원, 어른은 5만원이나 하더군요. 우리나라는 7세 이하 아이는
 무료, 어른은 3~4천원 정도 하니, 대충 20배 이상 비싸지요?
 게다가 줄은 또 어찌나 길던지.. 30분 이상 길에서 시간을 보낸
 뒤 입장 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해리포터에 나왔던 뱀 사육장과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수족관도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바로 놀이터였습니다.



파리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던 놀이터를 런던에 와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니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도 놀이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륙과 섬의 문화적인 차이인 걸까요? 거의 한 달만에 놀이터를 만난 아들 녀석은 제발 그만 돌아가자고 몇 번을 말해도 못 들은척 하며 한참을 놀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올 때는 뛰어놀다 지친 녀석을 안고 와야 했지요.



런던에 머무는 중 하루 날을 잡아 그리니치에 다녀왔습니다. 그리니치 왕립천문대가 있는 곳이지요. ‘그리니치 표준시 (GMT - Greenwich Mean Time)’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우선 해양사 박물관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체험코너가 있어 함께 해 보았어요. 자신의 깃발을 만드는 주제였는데, 다 만든 깃발을 전시까지 해주었습니다.



세계지도에 누워있는 아들 녀석과 공룡인형에 흥미를 보이며 모여든 아이들. 사진을 찍고 보니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표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해양박물관을 나와 이제 그리니치 천문대로 이동 합니다. 너른 초원을 산보하다 보면 금세 도착하게 되지요.



경도의 중심이 되는 본초자오선 위에 섰습니다. 서경과 동경의 영점이지요. 영국 대부분의 박물관은 입장료가 무료였는데, 저 본초자오선 위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입장료가 필요했답니다.



시간이 넉넉했더라면, 아니 그리니치 천문대의 너른 잔디밭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왔더라면 도시락을 싸와 피크닉을 즐길 수 있었을텐데.. 푸른 초원은 사람을 눕게 하는 힘이 있는가 봅니다.



그리니치 시장도 구경하고, 시내를 산책하다 100년 전통의 피쉬앤칩스(Fish & Chips)라고 쓰여진 식당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한국의 김치, 일본의 스시, 이탈리아의 스파게티와 피자, 프랑스의 달팽이 요리 등등.. 그런데 영국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 없어요. 굳이 꼽으라고 하면, 주저하며 말하는게 바로 '피시앤 칩스' 랍니다. 피시앤 칩스가 뭘고 하니, 위 사진처럼 감자튀김에 생선튀김 한 조각을 얹어 주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한 나라가 바로 영국 이라고 해요. 오죽하면 '(무뚝뚝한) 독일 여자를 만나, (겉모습만

신경 쓴) 프랑스 차를 타고, (형편없이 맛있는) 영국 요리를 먹으러 가는 바보의 데이트' 이야기가 농담으로 있으니깐요.

저 역시 100년 전통의 피시앤칩스를 먹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100년 동안 무얼 한걸까?'



이제 드디어 런던에서의 일정이, 아니 유럽에서의 여행이 하루 남은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온갖 생각이 교차하네요.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뿌듯함, 어서 빨리 한국의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그리움, 끝나는 여행에 대한 아쉬움...



아쉬운 마음에 런던 시내를 한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런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지금처럼 해맑게 웃는 아이와 아직은 싱그러운 젊음을 간직한 우리 가족의 행복한 때를 다시 가질 수 있을까요?



지난 5개월 간 어깨를 짓눌렀던 저 배낭도 이제 당분간 멜 일이 없겠지요. 런던의 히드로 공항을 떠나 터키의 이스탄불을 거쳐 한국의 서울로 돌아가는 길. 밤 12시가 넘는 시각, 불야성처럼 빛나던 이스탄불의 면세점을 보니 여행을 시작했던 때가 떠오르네요. 안녕, 잘 있어요. 우리가 스쳐간 유럽의 여러 나라들..



무사히, 건강하게 여행을 마친 저희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간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 3.31. ~ 2014. 8.24.

2015. 1. 9. ~ 2015. 4. 8.

담장위 고양이와 Sky Say, 그리고 우주최강 귀염둥이와 함께